

“좋은일 하도록 인연 맺어줍니다”

바라밀현장

진여회의 불우 이웃돕기 전시회

2월 25일 불우시설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의 만남전’이 열리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밀양 선우사 석지현 스님의 공예작품 10여점을 비롯해, 생활한복, 그림, 도자기와 한지공예 등 지역 중견작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예술공예작품 120여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이강영 대구문화예술회관 직장협의회 회장과 석지현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시 수익금 전액 복지시설에

이 행사를 주최한 진여회 회장 이상숙 보살을 비롯해 10여 회원들은 바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시종일관 싱글벙글이다. 지난해 첫 전시회 때는 전시할 작품을 기증받으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지만, 그간 진여회의 선행이 알게 모르게 널리 알려져 이번 전시회에는 중견작가들이 서

로 자신들의 수작(秀作)을 기증했기 때문이다.

후원금 모금을 위한 전시이지만 마구잡이식 판매가 아니라 후원자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원하는 작품을 골라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작품의 배치에서부터 조명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중증장애 아이들의 집인 톱비니동산, 대구경북척수장애인협회, 작은예술회 등의 복지시설에 전액 기증될 예정이다. 이상숙 회장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보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여회는 지난 99년 4월, 경북불교대학의 1-3기 졸업생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여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사회봉사활동이 가장 좋은 실천행이라 생각해 결성한 봉사 모임이다.

진여회가 주로 하는 일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지적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매월 일정



◇진여회 회원들이 기증받은 전시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액의 정기후원이나 밀반찬, 가사서비스 등. 작은 봉사모임이지만 진여회 식구들은 굳이 회원 한사람 더 늘리려고 매달리지 않는다. 주변의 한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불우한 타종교인에도 도움 손길

그러기에 미용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복지시설 등에 미용서비스를 하도록 연결하고, 음식 솜씨가 좋은 이를 만나면 반찬을 만들어 불우이웃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끈다. 또, 돕고 싶은 시간대나 어려운 사람들을 정기적인 후원자로 만들기 위해 1대 1 후원을 주선하기도 한다.

진여회 회원들은 “절이나 참선 등 자기 수행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바

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는 데 동감하고 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중생을 하나라도 더 돕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뜻에서 봉사에 발 벗고 나선다.

또,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라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이웃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고 말하는 진여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돕고 있는 복지단체나 대상자가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개의치 않고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종교가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혹사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교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포교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진여회 회원들의 모습이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한다.

대구=박원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페마 최된(미국 샴발라센터 원장) (T)

종교라는 틀에 매이지 않는 가르침

페마 최된 스님의 스승으로서 서구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선구자였던 트롱파 린포체(Trungpa Rinpoche: 1939-1987)는 1970년 미국으로 온 이후 전세계에 100여개의 명상센터를 세웠다. 그는 콜로라도주 볼더시에 서양 최초로 티베트에서 인가받은 불교대학인 나로파불교대학과 샴발라센터를 설립하고 격월간지인 <샴발라 선(Shambhala Sun)>도 발간했다.

70년대 초 은사 트롱파 린포체를 만난 페마 스님은 74년에 칼파파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받았으며 80년부터 콜로라도주 볼더 시의 샴발라센터 원장 자리를 맡아 사원에 머물며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게 된다.



◇미 감포사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페마스님(앞줄 두번째).

샴발라센터에서 페마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미국 대중의 마음에 가닿는 설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샴발라 명상 뿐만 아니라 불교정신이 배어있는 다도, 꽃꽂이 등 불교문화도 가르쳤다. 이는 종교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도 불자를 키울 수 있도록 고안한 프로그램이었다.

샴발라 교육은 밀교 경전에 트롱파 린포체의 설명을 곁들인 5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그 과정을 마치면 사회에 만연한 지배의 정치학,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명료함, 순화함, 사랑, 건강한 정신을 키워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샴발라교육 이념에 따라 1974년 설립된 나로파불교대학 역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유명한 비트 문인 앨런 긴즈버그, 심층 생태학자 그리고

리 베이트슨, 하버드 교수였다가 구루(요가의 스승)가 된 램 다스 등 뛰어난 강사진들이 명상, 기공, 탕화, 다도, 티베트어, 산스크리트, 종관철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고 밤에는 시낭송회, 공연, 세미나 등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열린 도량은 ‘정신의 우드스탁 축제’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23년이 지난 후 나로파불교대학은 정식대학 인가를 받아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할 정도로 성장했다. 비트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 나로파 문화프로그램은 늘 성황을 이뤘다. 나로파의 석사학위는 불

교학, 글쓰기, 노인학, 참여불교, 명상, 심리치료학 등 다섯 분야에 주어진다. 나로파의 학생들은 전원 명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의 병원, 양로원, 말기환자 보호소 등에서 실습하며 학업을 따도록 해 불교를 현장의 삶에 적용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페마 스님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명상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문화에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페마 스님은 자신을 명의·명교수 역할을 하도록 이끈 스승을 이렇게 회고했다. “스승께서는 가끔 복도에서 나를 불러세우고 난데없이 말씀하시곤 했지요. ‘너무 종교적이 되지는 마라. 지나치게 종교인인 척도 말고.’ 그 말씀은 내가 풀어야 할 화두처럼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법문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샴발라 선>과의 인터뷰 중에서)

김재경 기자



진여회 이상숙 회장

“보살행이 바로 불교공부예요”

처음 진여회를 꾸리고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가장 걸리는 것이 종교의 문제였다고 말하는 진여회 이상숙(51, 도연행) 회장. 이 회장은 “우

리부터라도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종교를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장애인들이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애인은 금강경을 외울 정도로 불교에 관심도 많고 절에 다니고 싶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서 불교계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자라고 하면서 봉사활동 하나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불교 공부와 보살행의 일치를 거듭 강조했다.

해해 선사에게 불경을 강의하는 법사 온광이 찾아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안목에 대해 물었다. 선사는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근기가 전박하며 경계를 당해 마음이 일어나면 선정이 부족한 것이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이며,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면 마귀 나라.”고 했다. 온광 법사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겠군요”라고 하자, 해해 선사는 “그러나 끝내 온광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했다.

<전등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할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마음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 즉 올바른 소견이다. 선사가 말한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수행은 마음을 비워 허공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마음비추기

마음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

풀이다. 사람들은 흔히 도의 경지를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서 마음을 완전히 비운상태로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뜻이다. 도를 보아야 하겠다는 욕심, 수행에 대한 집착 또한 욕심이므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경계를 당해 마음이 일어나면 선정이 부족하다’ 한 것은 수행자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경과 역경에 마음이 흔들

리는 까닭은 선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계란, 육근에 포착되는 바깥 모습들이다. 마음공부는 경계를 보되 경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

이다’ 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온갖 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따로 도를 얻겠다고 사람을 찾다니고 마를 좇아보면 외도가 될 뿐, 평생을 지나도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

면 마귀’라 한 것은 이번에는 자기 마음을 절대화 시켜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따로 있다는 소견을 짓는 경우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니까, 자기 마음 안에 다시 집착한다. 즉, 자기 마음속에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떠나 따로 절대적인 부처자리가 있다고 여기고 찾으려 한다. 이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외도보다 더욱 위험한 견해로써 마귀 종자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 마음을 두고 어떤 특별한 마음을 찾으려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쉬면 그 마음 그대로가 도인 것이다. 적연(유마선원장)

명상 프로그램 통해 불교 붐 조성 큰 역할



◇스승 트롱파 린포체로부터 서구인들에게 맞는 포교방법을 배운 페마스님은 명상과 문화, 사회봉사의 접목을 통해 티베트 불교 붐을 조성했다.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계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훈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총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통

무릉산 일도사 극락보전 점안 대법회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세계 10여개 불교국가의 200여 불상과 불교 유물을 종합전시하는 세계불교박물관 노천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릉산 일도사는 금번 새 법당 불사를 원만회향하는 극락보전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03년 3월 30일 일요일(음력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경북 영덕 무릉산 일도사 극락보전 대법당
- ◎ 연 락 처 : 총무소 054)733-8786
- ◎ 홈페이지 : HTTP://WWW.ILDOSA.COM

대한불교무릉산 일도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6번지

